

강진군, 광주지역 관광업계·기관 초청 팸투어 가져

강진군 전체 방문자 중 광주·전남 70.2%...가장 큰 관광시장 25명 초청 다산초당·영랑생가·사의재 등 돌아보는 코스 진행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원)은 지난 15일, 광주지역 여행업계 대표 및 기관 단체장 등 25명을 초청해 당일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는 강진군의 여행상품이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업계 종사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답사 여행으로, 행사 자체의 만족도에 따라 홍보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번 광주지역을 위한 팸투어는 한국관광대 이터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진군의 전체 방문자 중 광주·전남이 70.2%로 집계됨에 따라, 가장 큰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이어가기 위한 군의 의지로 풀이된다.

답사는 강진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색과

명상의 공간인 백련사의 동백나무숲길 따라 다산초당을 지나 사찰음식 체험, 강진만생태공원 및 영랑생가, 사의재 조만간 마당극 관람, 가우도에서 해안선 생태탐방로 트래킹, 짚트랙 체험, 고려청자박물관까지 관광객이 되어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한우리 여행사 국순철 대표는 "광주에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2번씩 매달 강진을 찾고 있지만 강진의 숨은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강진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강진밖에 없다"며 답사 내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여행



사와 협업을 통해 테마별 여행 상품을 기획해, 관광객 유치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관광객 유입의 의지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 관산읍, '농·축산업 살리기 풍년기원제' 열어

장흥군 관산읍은 18일 장전제 잔디구장에서 올해 한해 풍년을 바라는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풍년기원제는 관산을 우리 농·축산업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조상신께 한해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례행사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원, 관산읍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살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주민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농·축산업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장자치회, 관산농협,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한우협회, 쌀생산자협회, 마늘생산자협회로 구성돼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농업의 발전과 선진화에 앞장서 온 관산농업인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읍민의 안녕과 올해 풍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보훈회관 준공, 9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 마련 21억 투입 건립...보훈단체 안정적 운영·단체 간 소통·협력 기대

완도군은 보훈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준공되어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신익준 도의원, 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보훈회관은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2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743.31㎡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승강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회관 1~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3층은 회의실과 완도군에비교지역

대 사무실로 사용된다.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는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단체이다.

군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통합으로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보훈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강성운 부군수는 "군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영예로운 삶을 사시 수 있도록 위훈을 선양하는 보훈 정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70여종 전시·공연·체험 가득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오늘 개막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 주제, 개막식에 가수 송가인·진조크루 출연

"민속·문화 등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 진도군에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K-평예관광축제인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화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길이 2km, 폭 30~40m의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로운 바닷길 체험과 진도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주제는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이다.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10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3일동안 열리는 축제장에서 70여종의 다양한 전시·공연·체험을 만날 수 있다.

20일(목) 개막식은 호랑이 놀이와 진도 북춤을 시작으로 오후 3시 미스트롯 진에 선정된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씨와 세계적인 흥을 달굴 예정이다.

진도 씻김굿, 진도아리랑, 남도잡가, 해

상 선박·진도북놀이 퍼레이드, 남도들노래, 조도뱃배노래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민속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다양하다. 진도 특산물 시식 체험을 비롯 진도 차 시음·체험, 남도품비명인전, 글로벌 음악여행·씨름·림보대회, 컬러풀 진도,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플래쉬몹, EDM 나이트 쇼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진도개 경주, 찾아가는 DJ 뮤직박스,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신비의 모도섬 마을 음악회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진도올금을 비롯 구기자, 미역, 톳, 다시마, 검정쌀 등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열린다.

군은 축제 기간 매일 저녁 7시부터 뽕할머니 동상에서 200여m 해안도로를 따라 '기적의 바닷길 미디어 아트'도 함께 선보인다.

또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다를 살리자' 캠페인과 미세 플라스틱 수거, 환경보호 행위예술 퍼포먼스도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을 방문하면 즐겁고 행복한 추억여행이 되도록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재정집행 전국 1위 '일하는 군정' 열심히 뛰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은 물론 전국 시·군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해남군의 지방재정은 1조 3,274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액의 85.5%인 1조 1,385억원을 집행해 가장 높은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집행률은 전남도 22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최고 실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하반기 목표액 1,378억원 대비 734억원을 초과 집행, 153.3%의 집행률을 달성해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